

## 화성문화재단 찾아가는 공연장 운영

화성문화재단은 9월부터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선사하는 ‘찾아가는 공연장’을 운영한다.

문화재단은 화성시가 7년만에 인구가 2배로 급증하면서 주변 다른 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이 많아 이 실정을 고려해 찾아가는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.

이 사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소외계층, 공단근로자, 문화소외 지역주민 등 신청접수를 받았다.

또 기획의도에 맞는 예술단체와도 접촉, 장르별 선정 작업을 거쳐 클래식, 국악, 연극, 재즈, 퓨전음악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.

‘찾아가는 공연장’ 첫 프로그램은 내달 2일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근로자 130명을 대상으로 한 수원대학교 과르텟 아마빌레의 클래식 현악4중주 팀의 공연이며, 12월까지 약 50여회의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.

현재 9월 공연은 총 11회로 확정됐으며, 상반기에 40여회 운영했던 ‘찾아가는 영화관’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. 문의 031-267-8851. 류설아기자/rsa119@joongboo.com